

효녀 심청전

- 부안 사투리 이야기 -



AI 도움받아 김중숙 쌤

작가 프로필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글과 그림으로 담아내는 “AI 동화 작가”입니다.

따뜻한 수채화풍의 그림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에게 들려줄 새로운 AI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그리고 있습니다.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
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
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
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
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
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1장: 심청이와 심 봉사

옛날, 부안 마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심봉사 아버지가 살았어요. 곁에는 마음 착한 딸 심청이가 있었지요.

“아부지, 저 왔어요!”

심청이가 방긋 웃으며 들어오자, 아버지가 손을 더듬더듬 뻗었어요.

“우리 딸, 오늘도 고생 많았다. 못난 애비 때문에 이게 뭘 고생이냐.”

심청이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어요.



2장: 스님과 특별한 선물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마을을 지나가다 심청이에게 말했어요.

“쌀 삼백 석을 시주하면, 눈을 뜨게 될 것어요.”

심청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마을 “AI전문가”가 작은 기계를 건넸어요.

“청아, 이걸 쓰면 아버지 일상을 챙기기가 한결 편할 거야.”

기계를 받아 든 심청이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3장: 큰 결심

심청이는 결심했어요.

떠나기 전, 아버지께 기계 사용법을 알려드렸지요.

“아버지, 제가 없어도 AI비서를 부르면, 식사 시간도 알려주고 날씨도 말해줄 거예요.”

아버지는 심청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였어요.

“가지 마라. 제발 내 곁에만 있어 다오.”



4장: 뱃 사람들과의 약속

심청이는 눈물을 흘리며 배에 올랐어요. 뱃사람들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참말로 아버지 눈을 뜨게 할 작정이여?”

심청이는 흔들림없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예. 우리 아버지 눈만 뜨신다면 저는 행복할 거여유.”



5장: 인당수에 풍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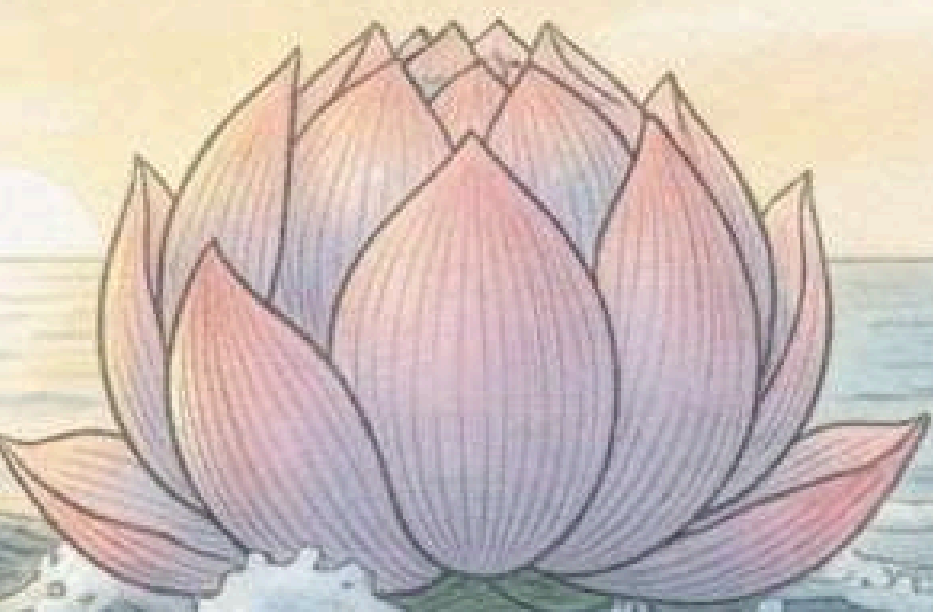
심청이는 출렁이는 바다를 보며 기도하고 인당수에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때, 바닷속 용왕님이 심청이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셨어요.

“아이고, 참으로 기특하구나!”

용왕님은 심청이를 커다란 연꽃 속에 고이 모셔 두었어요. 연꽃이 바다 위로 둥둥 떠올랐어요.

당장 궁궐로 가져오너라!



6장: 연꽃이 궁궐

커다란 연꽃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녔어요. 바다위를 떠다니는 연꽃 이야기는 임금님에게도 전해졌어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임금님은 깜짝 놀라 명령했지요.

“당장 궁궐로 가져오너라!”

궁궐 연못에 띄운 연꽃이 활짝 피더니, 그 안에서 심청이가 쏙 나왔어요.



제7장: 임금님의 마음

임금님은 심청이의 고운 마음
씨에 반해 심청이를 왕비로 삼
았어요.

하지만 심청이는 마음이 항상
아렸어요.

“전하, 잘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 아버지, 밥은 잘 잡수고
계실랑가요?”

심청이는 임금님께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답니다.

“모두 맛나게 드셔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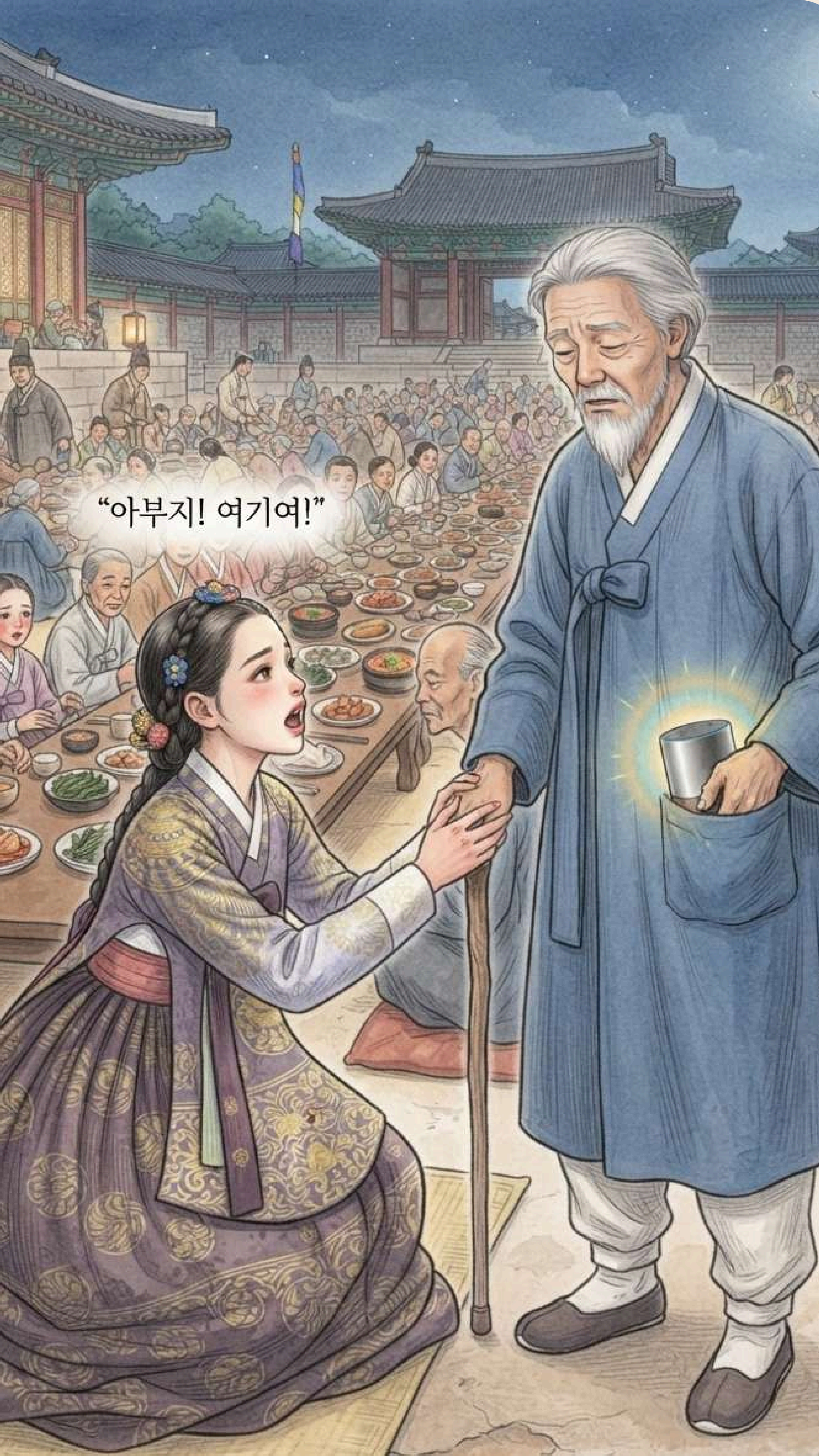


제8장: 잔치를 열다

심청이는 온 나라 안의 눈이 불편한 사람들을 부르는 큰 잔치를 열었어요.

“오신 분들 모두 맛나게 드세요.”

심청이는 AI의 도움을 받아, 궁궐의 커다란 화면으로 잔치마당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시다.



“아부지! 여기여!”

제9장: 아버지랑 상봉

잔치가 끝날 무렵, 마지막에
심봉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심봉사 품에 있던 기계가
심청이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반짝였어요.

“아버지! 여그여! 여그~!”

심청이의 목소리에 심 봉사가
눈을 번쩍 떴어요.



제10장:행복한 눈물

“어이구, 우리 딸 심청이 아니냐! 내 눈이 번쩍 뜨이는구나!”

심청이와 아버지는 껍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부안 마을에는 예쁜 꽃향기가 가득 퍼지는 것 같았어요.



오래 간직해 온 부안의 말이 동화가
되어 아이들에게 전해 진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부안읍 주민자치 위원회

전) 위원장 김양곤 김 양 곤